

추도문

송상용 선생님에 대한 회상

김성근†

내가 송상용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뵈는 것은 2023년 12월 무렵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따님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셔서 전남대학교 기숙사에서 1박을 하셨고, 이듬해 봄에 손자와 함께 다시 광주를 방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시고 말았다.

한국에서 과학사, 과학철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누구든 송상용 선생님과 나름의 추억이 있을 것 같다. 나도 그랬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95년 여름 무렵으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쯤이었다. 그해 여름 학기에 대학 졸업을 앞둔 나는 우연히 과학철학자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과 만났고, 그 책 때문에 과학철학의 매력에 건잡을 수 없이 빨려들었다.

그 시절 많은 젊은이가 그랬듯이, 대학 생활 내내 나 또한 소위 운동권 학생이었고, 화학공학이라는 내 전공보다는, 정치와 철학, 역사 등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니던 대학의 정문 앞 서점에서 발견한 포퍼의 그 책은 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마르크스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해왔던 나는 그것을 사이비 과학으로 몰아붙이던 포퍼의 책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 skk313@jnu.ac.kr

보다 더 큰 충격은 당시 포퍼의 이론은 내가 도저히 반박하기가 불가능한 벽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과학사, 과학철학이라는 학문을 해야겠다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사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내 큰형님은 한림대에서 고전 한문학을 가르치고 계셨다. 내가 과학사, 과학철학을 공부하기로 한 이상, 주변에 의논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큰형님을 통해서 같은 대학에 송상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해 여름 무렵에 서울의 자택에서 선생님을 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사실 나는 송상용 선생님을 만나뵙기 전에 이미 진로를 결정한 상태였다. 당시 내가 다니던 대학의 일본어 선생님을 통해 동경대학의 대학원에 과학사, 과학철학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미 그곳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힌 상태였다.

송상용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일본에 가서 과학사를 공부하겠다고 나름 호기롭게 외쳤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막상 내 계획에 찬성하지 않으셨다. 서울대에서도 과학사, 과학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 굳이 일본으로 가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다. 하지만, 내 속내는 외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대학에서의 학점이 굉장히 좋지 못해서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당시 또 과학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마구잡이로 던지셨다. 마치 아주 호된 면접장에 온 느낌이었다. 얼굴이 벌게진 나는 사실 그날 선생님을 만났던 것을 오히려 후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그 충고는 내게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 되었다. 선생님은 과학사에 대한 내 나름의 전의를 시험하셨던 것 같다. 그런 정도 각오와 열정도 없다면, 이 과학사라는 학문에 도전하지 말라, 라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동경대학 대학원의 과학사, 과학철학 연구실에 입학을 하자, 선생님은 그때부터 나의 가장 든든한 학문적 후원자가 되어 주셨다. 한국에 잠시 들어올 때마다 선생님을 뵈었고, 또 선생님께서 일본에 오실 때도 내게 연락을 주셨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동경에 잠시 체류하셨을 때는, 일본의 몇몇 과학사 연구자들과 함께 사모님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던 기억도 있다. 선생님과과의 만남은 내가 케임브리지의 니덤 연구소에 체류했을 때도 계속 이어졌다.

돌이켜보면, 송상용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다. 선생님과 나는 나이 차이가 작지 않은 편인데, 선생님과 대화할 때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많은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평소 젊은이들의 의견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신 모습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다. 선생님은 당신의 말씀보다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시길 더 좋아하셨던 것 같다. 그 모든 것이 다른 이에 대한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 가지 더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한 번은 학회에서 내가 “군사 테크놀로지”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선생님께서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한글을 특히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비판은 당시로서는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학문을 사랑하시고, 타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비판이라는 경험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고 물으셨고, 나는 한국의 과학 어휘들의 탄생에 대해 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왜 요즘 젊은 연구자들은 내게 책을 봐달라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시면서 내 초고를 가지고 가셨다. 결국 그 초고는 돌아오지 못했다. 어쩌면 선생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송구스럽지만, 마지막까지 앓을 갈구하신 진정한 연구자의 모습을 본 것 같아, 나는 여전히 가슴이 뭉클하다.

살아오면서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돌려드리지 못한 것이 이렇게 죄송스러울 수가 없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선생님의 그런 학문을 사랑하시는 순수한 열정을 본받아,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것뿐이다. 선생님,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